

新平李氏世譜全

新刊序

戊辰譜를 刊行한지 벌써三十一年이매 生死存沒의 많은 變遷을 가져왔다 三十年에 한 번씩 修譜하는 前例에 依하여 譜牒의 續修가 다시 要請되게 되었다 去年 가을에 諸族이 會同한 자리에서 意見의 一致를 보아 다시 修譜하기를 議決하고 爾來各派에서 積極推進한 結果 譜單이 完集되고 鳩財도 圓滑히 進行되었으므로 譜冊을 全編一冊으로 繕寫하여 印刷에 부치게 되었다 이번 譜役에 있어서 經驗이 不足한 나로서 都有司의 責任을 맡게 되었음을 의람하게 생각하는 바이다 그러나各派有司의 獻身的인 努力에 依하여 迅速히 推進되었음을 거듭 感謝하는 바이다 이 修譜의 意義와 目的은 두말할 나위 없었이 崇先睦族에 있는 것이다 아무리 修譜를 거듭하더라도 崇先睦族의 實을 舉揚치 못한다면 우리의 努力은 徒勞에 돌아가고 말 것이다 이번 修譜를 契機로 하여 令同正公後孫은 世派의 遠近을 莫論하고 花樹의 誼를 도답게 하여 한 집안이 되어 주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但 黃海道 松禾의 司直公後孫一派와 兎山의 康翎公後孫一派가 三八線의 分斷으로 因하여 同譜치 못하였음을 遺憾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檀紀四千二百九拾一年戊戌正月上澣令同正公十八世孫善容序

派系攷

吾李世譜의 編修는 只今으로 부터 三百八年前即 孝宗九年庚寅에 東川子昫氏의 苦心으로 創始되었는데 이것이 順治舊譜이다 草創된 譜冊임으로 完譜라고는 할 수 없으나 創始의 功은 컸었다 그後七十七年 英宗二年丙午에 東川公의 孫僉樞道炯氏와 令同正公後孫 振威縣令 煥氏가 다시 修譜를 約束하여 各派에 發通收單하던 中途에 煥氏가 棄世하매 道炯氏가 收輯된 草單을 整理完編하였는데 이것이 二回째 編成한 丙午譜이다 그러나 草本에 그치고 刊行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그後七十三年 正宗二十二年戊午에 德溪公後孫 道健氏와 時德氏의 主管으로 第三回의 譜冊을 編修하였는데 筆法이 明正하고 派系가 詳悉하여 가장 完備된 譜冊으로서 비로소 刊行을 보게 되었다 그後六拾年 哲宗八年丁巳에 坡州派 富寧府使在明氏의 主管으로 槐堂公後裔一派와 合同하여 第四回째의 丁巳譜가 編撰되었고 그當時 德溪派에서는 辛多譜가 發刊되었는데 兩側의 意見이 不合하여 爭論이 紛紜하였다 그後五十一年 隆熙元年丁未에 第五回의 修譜가 있었으나 案誤가 甚하여 後世에 傳할 만 한 譜冊이 되지 못하였다 그後二十二年 戊辰에 第六回의 修譜를 斷行하여 丁未譜의 誤謬를 匡正하였다 다시 三十一年을 經過한 오늘에 第七回의 修譜를 하게 되었는데 今次의 修譜는 令同正公派單譜로 編撰하였다 그

理由는 다음條項의辨論과 같다

吾李諸派가 文簡公을始祖로 하여 代系昭穆이 分明히 考證할 수 있으나 令同正公一派만은 公以上の 代系가 間絶되어 文簡公까지의 系統을 알 수 없다 이것이 後孫의 痛恨이 아님이나 臆測으로 繼承承지킬 수는 없는 것이다 文簡公의 九世孫 通禮門舍人公上垣의 曾孫이 華이고 令同正公의 子正字公이 之 莖인대 莖字 밑에 한劃을 나리고 으면 華字가 되고 華字 밑에 한劃을 빼면 莖字가 될 수 있음으로 晚隱公 灌은 莖字와 華字의 誤書가 첩경하다 하여 之 華와 之 莖을 同一人인 것 같이 의심하면서 또 말씀하기를 令同正安이 吾派의 先祖된다는 것도 後裔의 傳聞에 依한 것이 고 明確한 證據는 없다 고까지 하였다 이것은 華莖兩字의 誤書를 事實化하여 正字公之 莖을 舍人公上垣에 系承시키려는 意圖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나 晚隱公의 이 見解는 甚한 錯誤이다 南村公誌文에 依하면 六世祖 安麗末 避倭寇入海西因居焉이라고 써어 있다 그 뿐 아니라 舍人公上垣이 高麗忠肅王五年丙子에 出生하여 李朝太宗元年辛巳에 卒하였고 令同正公은 恭讓王時人인즉 兩公의 年齒老少는 알 수 없으나 同時代임은 틀림없다 그렇다면 舍人公曾孫之 華와 令同正公子之 莖이 同一人이 될 수 없음은 疑心할餘地조차 없는 것이다 晚隱公의 한 말씀이 後世의 疑惑을 자아내어 舍人公의 孫敎導公 貴通과 令同正公安을 兄弟行같이 看做하여 戊午譜와 丁巳譜에 二公을 兄弟行처럼 列書하였으니 過誤가 더 클 수 없다 그러므로 이 誤謬를 匡正하기爲하여 令同正公을 一世祖로 하여 今回의 單譜를 編成하는 同時에 後日의 譜規를 確立한다

舍人公上垣이 文簡公에 九世인대 令同正公과 同時人이고 雙梅公詹은 文簡公의 七世孫인데 高麗忠穆王元年乙酉에 出生하여 李朝太宗五年乙酉에 卒하였으니 亦是 令同正公과 同時人이다 年代와 世數로 미루어 보면 令同正公이 文簡公의 七、八世孫의 昭穆에 該當하다 그러나 明證確據가 없음으로 令同正公을 中祖로 하고 文簡公을 始祖로 하여 淵源의 所自를 보일 뿐이다 丙午修譜時에 振威公俊이 諸宗에 보내는 通文에 令同正公以上은 代系가 닿지 않고 文獻이 證據가 없다 하여 令同正公으로 一世祖를 삼았다 今回의 譜規도 振威公의 뜻을 좃은 것이니 後日에 도 이 譜例를 遵守하여 다시 案誤의 前轍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舊譜에 依하면 世代系統이 不明한 百濟新平縣戶長 諱仁壽와 百濟功臣新平公 諱珠와 新羅阿餐 諱碩德三公이 記載되어 있다 그러나 新平縣이 百濟時에는 沙平縣이었으니 百濟新平縣戶長과 百濟功臣新平公이라는 稱號가 該當치 않고 年代로 推考하더라도 百濟末期와 高麗中葉인 文簡公時代가 相距四五百年이니 四五百年前에 先祖한 분이나 아니라 고 그 後繼承이 없이 四五百年後에 子孫한 분이나 타날 수 없는 것이 다 이것으로 보아三公의 時代云云은 믿을 수 없다 또 丁巳譜에 記載된 松禾派集鴻氏所錄에 依하면 以上三公以外에도 諸人의 諱字가 있으나 어데서 考出하였는지 憑信할 수 없는 것이다

輿地勝覽에依據하면新平이百濟時에는沙平縣이었고新羅景德王 때에는新平縣으로改號하여攄城(沔川)屬縣이되
었고高麗建國後九十年頃인顯宗 때에는洪州에移屬시켰다吾李의本貫을新平으로한것이洪州에移屬한以後일것이
다그것은始祖文簡公이顯宗以後高麗中葉사람인것으로미루어알수있다그리하여本貫을初期에는新平으로하다가
後代에는洪州로한것같다왜냐하면李朝太宗實錄五年乙酉條雙梅堂公略史에依하면詹은洪州人이라고써어있다
것으로보면雙梅公時에도本貫을新平으로하지않고洪州로한것이分明하다新平縣이洪州의한地方인즉新平을洪州
라고하여도妥當할것이다自今以後로는雙梅公을본받아洪州를本貫으로하여도可할것이다
令同正公派의行列名字는從前부터施行하여온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의天干字의行列를그대로襲用하되行列字를
이름의아래字로定하여左에揭載하여吾派名行의統一을期한다

彙○九 ○弼 ○寧 ○儀 ○紀 ○庸 ○幸 ○廷 ○揆

끝으로한가지말하여들것은 戊辰修譜할때에二三宗人이 咸鏡南道利原郡姜必東의집에있는 所謂萬姓譜라는
것을抄錄하여왔었는데 그荒誕捏造가이루말할수없었다 後日이라도이러한荒誕無稽한僞書에眩惑치말어야할
것이다

新平李氏世譜全

始祖李德明 本貫洪州之新平縣

高麗朝門下侍中平章事
諡文簡墓唐津松嶽面梧
谷里崇學山東西坐原

新平本百濟沙平縣新羅景德王改
號新平為檜城屬縣高麗顯宗九年
移為洪州屬縣

中祖李安

高麗朝合同正
恭愍恭讓王時入避倭寇
入海西之松禾因居焉
墓在黃海道信川郡龍門
面泮亭里元松禾東面久
耳坊泮亭子坐原

子之二世

承文院正字
始仕李朝墓上同子坐
有碣字剏難曉
配坡平尹氏父志玄

子之三

參判
墓泮亭子坐有碣字剏難
曉
配河東鄭氏父府使龜慶

子之四世

通訓大夫承文院判校兼
春秋館編修官 早中司
馬端宗元年景泰癸酉四
月十五日增廣文科丁科
三十人中一人延原君李
崇元榜下歷議政府舍人
弘文館校理掌隸院判決
事成宗十年成化十五年
己亥五月十日卒墓上同
子坐有碣字剏難曉
配淑人白川趙氏父司宰
監明瑤祖直長順和成宗
二十年己酉正月十一日
卒墓附

子之五世

副司直 成化壬辰生墓
上同子坐有碣
配首陽崔氏天順辛巳生
忌二月二日墓附

子之六世

司直公之子孫居松禾信
川等處而以三八線之故
不得同譜

子世綱

下見

子世健

下見

子世純

下見

女南仁錫

宜寧人僉知贈宜春君子
府使窳則宜溪君嶽祥崙
對崔從女閔懷驚玄沉俞
沆

間絕無文獻可徵而文簡
公九世孫通禮門舍人公
上垣生於高麗忠肅王五
年丙子卒于李朝太宗元
年辛巳文安公陰於文簡
公為七世孫而生於高麗
忠穆王元年乙酉卒于李
朝太宗五年乙酉令同正
公安亦為高麗恭讓王時
人則三公皆為同時人也
以世代推之則令同正公
於文簡公為七八世昭穆
無疑然既無文獻可據故
以令同正公為一世之祖